

인터뷰

“親환경 가치 실현 - 콘텐츠와 사람 중심의 휴먼 엑스포 추구”

- 5월 개막 앞둔 여수엑스포 : 생산 유발 12.2조원, 고용 창출 8만명 등 경제 효과 기대 -

여수엑스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수신항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고 있다. 과학 기술, 산업, 문화 등 인류가 쌓은 업적을 한 자리에서 나누고 미래의 희망과 전망을 공유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인 것이다. 강동석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여수엑스포는 건물·기술 중심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사람 중심의 박람회를 추구한다”며, “관람객이 주역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휴먼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위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경기장 건설 및 경기 진행이 주된 사업인 올림픽, 월드컵과 달리 세계박람회는 박람회장 건설 외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전시 콘텐츠 협의, 문화 행사 등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복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결정 이후 4년 만에 세계적인 축제를 철저히 준비하여 개막을 앞두고 있어 보람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강동석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여수엑스포는 유치까지 10년, 준비 기간 4년이 걸린 국민 염원의 박람회이자, 대전엑스포 이후 우리나라에서 19년 만에 다시 열리는 세계 박람회입니다.”

여수엑스포가 채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요?

국가 이미지가 걸린 대규모 행사인 만큼 개막 일정 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시설 공사도 3월 말 마무리됩니다. 4월 한 달간은 80개 전시 시설과 8,000여 회에 달하는 문화 공연을 시범 운영하고, 4월 말부터 개막 전까지는 실제 관람객들을 초청해 세 차례 예행 연습을 가지면서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콘텐츠를, 예행 연습 기간에는 서비스를 점검하는 셈입니다. 여수엑스포는 유치까지 10년, 준비 기간 4년이 걸린 국민 염원의 박람회이자, 대전엑스포 이후 우리나라에서 19년 만에 다시 열리는 세계 박람회입니다. 감회가 새롭고,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에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련되고, 세심한 마무리입니다. 천만 관객 앞에 첫 선을 보일 박람회는 시설에서부터 전시, 문화 공연까지 꼼꼼히 마무리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과 예행 연습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실천하려고 합니다. 감동

은 거창한 전시나 공연보다 사실 작은 서비스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숙박은 전시, 공연 콘텐츠 못지않게 세심하게 준비해 온 분야입니다. 우선 지난해 개통된 순천~완주 고속도로, 전라선 KTX에 이어 목포~광양 고속도로, 한중일 해상 크루즈, 임시 항공편 등 다양한 광역 교통망이 속속 확충됩니다. 문제는 여수시 외곽에서 박람회장까지인데, 이는 환승 주차장과 셔틀버스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 외곽에서 박람회장까지 오는 주요 도로상의 승용차는 최대한 환승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박람회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바다를 주제로 채택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인류의 심각한 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 변화와 육상 자원 고갈의 해결책이 모두 바다에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BBC방송에서 미래학자들도 100년 후인 2112년에 지구상 100억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등을 바다에서 구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전시와 공연, 학술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엑스포에서는 관람객들이 일반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 접하던 바다의 중요성이나 매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륙 문화의 영향으로 바다를 소홀히 해왔는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국토가 21세기에는

인터뷰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은 크게 4개의 특화 시설과 73개의 전시관, 그리고 3개의 체험 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빅오와 스카이다워는 영구 보존하는 시설이며, 세계가 주목할 만한 명품 콘텐츠라고 자신합니다.”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지 금부터라도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여수엑스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주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까지도 지구 온난화로 인류가 1,000년 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지구 종말 가능성을 측정하는 운명의 날 시계도 기후 문제 등으로 1분 더 앞당겨졌습니다. 이렇듯 학계의 불안은 가중되는데 이에 대한 국가 간 공감대, 기후 변화의 열쇠인 바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2050년까지 50%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엑스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를 가깝게 체험하고, 그동안 몰랐던 바다의 삶, 가능성, 신비에 대해 알려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제관에서는 듀공과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바다와 유대감을 느끼고, 기후환경관에서는 빙벽이 무너지는 지구 멸망 5분 전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해봄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5대양 6대주의 해양 생물이 모이는 아쿠아리움과 오동도 인근에 조성되는 바다 숲, 연안 어선은 해양 생태계와 어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

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박람회 전시 시설 가운데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시설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은 크게 4개의 특화 시설(빅오, 엑스포디지털갤러리, 스카이다워, 아쿠아리움)과 73개의 전시관, 그리고 3개의 체험 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빅오와 스카이다워는 영구 보존하는 시설이며, 세계가 주목할 만한 명품 콘텐츠라고 자신합니다. ‘큰 대양(Big-Ocean)’을 뜻하는 ‘빅오(Big-O)’는 박람회장 내 바다 공간으로, 둘레 47m의 O자형 워터스크린과 물에 잠기는 무대, 120m 길이의 초대형 해상 분수를 설치해 바다를 주요 공연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이곳에서 낮에는 대규모 출연진이 바다 위를 활주하는 해상쇼와 국내외 유수의 수상 공연이 펼쳐지고, 야간에는 불꽃, 물안개, 레이저, 분수 등 최첨단 연출 기법을 총동원한 멀티 미디어쇼, 관람객이 하나되는 DJ쇼가 펼쳐집니다. ‘스카이다워’는 산업 폐기물인 시멘트 저장고를 하프 모양의 대형 파이프 오르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67m 높이의 이 파이프 오르간은 250년 5대에 걸친 독일의 파이프 오르간 명가 ‘헤이 오르겔마우’에서 제작했고, 피아노에 버금가는 80음계를 연주할

“여수엑스포는 88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93대전엑스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여수엑스포는 국제 사회가 기후 변화, 육상 자원 고갈로 인한 위기를 절감하고, 생명의 근원인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악기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여수박람회는 친환경 박람회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수세계박람회는 160년 세계 박람회 역사상 최초로 ‘환경지침’을 제정해 계획·건설·운영·사후 활용까지 ‘친환경’ 가치를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물인 한국관을 비롯하여 주제관, 국제관 등 주요 전시관은 친환경 자재로 건설됐으며, 태양열·해수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됩니다. 관람객들이 이런 친환경 시설들을 별도로 둘러보고 첨단 에너지 기술과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녹색 관람 코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환승 주차장-셔틀버스 시스템을 운영하며, 폐페트병 활용 유니폼을 착용하는 등 관람객과 종사자가 함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유치의 기대 효과와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수엑스포는 88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93대전엑스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

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여수엑스포는 국제 사회가 기후 변화, 육상 자원 고갈로 인한 위기를 절감하고, 생명의 근원인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엑스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해양 과학 선진국 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유발 12조 2,000억원, 부가가치 5조 7,000억원, 고용 창출 8만명에 이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외에도 3개월 간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브랜드 향상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는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과 수많은 만으로 구성된 해상국립공원, 다도해가 공존하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 중소 도시로서 접근성과 문화 대표성이 부족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수엑스포는 단순히 박람회장 건설과 행사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숙박, 관광 서비스, 문화 콘텐츠 등 지역 개발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수는 엑스포를 통해 얻은 친환경 도시 이미지와 해양 관광, 문화 콘텐츠들을 도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CERIK

클·사진 : 이형우 편집장